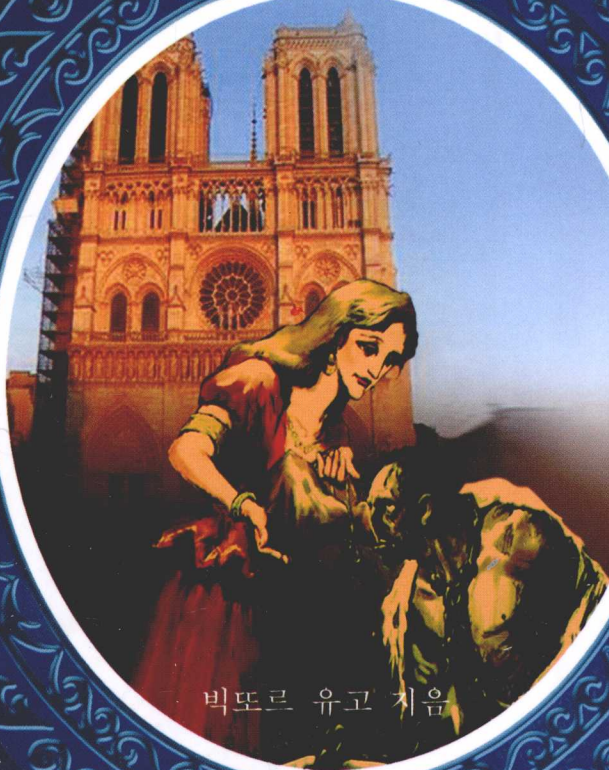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빠리 노뜨르담사원



빅토르 유고 치음

연변인민출판사

빠리 노뜨르담사원

(프랑스) 빅토르 유고 지음

허영순 중역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廉福姬

责任校对: 金红花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巴黎圣母院: 朝鲜文 / (法) 雨果 (Hugo, V) 著; 许英顺译.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11

ISBN 978-7-5449-0703-3

I. ①巴… II. ①雨… ②许… III. ①长篇小说-法国-近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565.4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202907号

巴黎圣母院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625 字数: 184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703-3 (民文)

版次: 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4.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 리 말

빅토르 유고는 낭만주의의 거장으로서 자유주의적, 인도주의적 경향을 풍부한 상상력과 장려한 문체, 운률의 형식을 빌어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사람들은 그의 대단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리듬에 모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낭만주의적인 작품은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마침내 신혼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빠리 노프르담사원”은 15세기 빠리가 무대이며 성직자, 종지기, 장교, 무희 등의 생활과 도덕, 미신을 폭넓게 묘사한 낭만파소설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까씨모도

노프르담대성당의 종지기로 태어날 때부터 애꾸눈이고 곰 주인데다 절름발이였습니다. 그리고 종지기를 하면서 귀머거리가 됩니다. 날렵하며 독심과 용감성이 있으며 순박합니다. 짐시처녀 에스메랄다를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에스메랄다

아주 아름다운 짐시처녀로 특히 춤을 추는 모습이 매혹적 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다. 까씨모도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만 그녀는 퍼비스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퍼비스에게 버림을 받으며 살인루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삐에르 그랑그와르

가난한 시인이며 철학자로 에스메랄다의 형식적인 남편임





니다. 성사극의 각본을 쓰고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엉망이 되고합니다. 이후 부랑자의 소굴로 들어가 광대노릇 등을 하며 지냅니다.

크로드 플로로

노뜨르담대성당의 부주교이며 까씨모도의 양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 성직자가 되게끔 공부했으며 학식이 풍부합니다. 에스메랄다의 춤 추는 모습을 보고 반해 번뇌에 빠지며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퍼비스

왕실 근위병대장으로 야간순찰을 하다가 곤경에 처한 에스메랄다를 구해줍니다. 에스메랄다가 자신과 관련된 살인사건에 연루되지만 퍼비스는 무관심하며 결국 한때 좋아했던 에스메랄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합니다.

구뮈르수녀

에스메랄다의 친어머니이며 롤랑탐의 굴방에 숨어사는 여인입니다. 짐시녀자에게 딸을 도적맞힌 충격으로 은둔생활을 하다가 에스메랄다가 간직한 가족신과 자신이 가지고있는 가족신이 같은 짝임을 확인하고 모녀는 극적으로 상봉합니다.



차 례

제1권

1. 성사극1
2. 추기경12
3. 자크 코프놀13
4. 까씨모도19
5. 에스메랄다25

제2권

1. 광장에서의 광환29
2. 겁탈36
3. 구사일생40
4. 결혼 첫날밤52





제3권

1. 버려진 아기61
2. 크로드 플로로63
3. 종루의 괴물68
4. 충견과 주인71
5. 타락한 선교사72

제4권

1. 황당한 재판75
2. 쥐구멍80
3. 파케트의 이야기83
4. 한방울의 물, 한방울의 눈물89

제5권

1. 소녀의 심사96
2. 사악한 마음104
3. 큰 종109
4. 숙명111
5.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116
6. 의기투합하다117
7. 어깨비수도사120
8. 자정의 살인사건124



제6권

1. 가랑잎으로 변한 금화	129
2. 가랑잎으로 변한 금화(속편)	137
3. 가랑잎으로 변한 금화(속편 끝)	141
4. 모든 희망을 버려라	144
5. 어머니	151
6. 세 사람의 마음	152

제7권

1. 열광	164
2. 곱추, 애꾸눈, 절름발이	168
3. 귀머거리	172
4. 질그릇과 수정꽃병	174
5. 붉은 문의 열쇠	185
6. 붉은 문의 열쇠(속편)	187

제8권

1. 시인의 묘책	193
2. 불한당이 되려무나!	197
3. 만세소리	200
4. 일간이벳	203
5. 루이왕이 기도드리던 방	213
6. 퍼비스의 구원병	223



제9권

1. 도망227
2. 조그만 가족신236
3. 미녀254
4. 까씨모도의 결혼263



제1권

1. 성사극

1482년 1월 6일 새벽, 파리사람들은 하늘을 진감하는 종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마침 두가지 중요한 명절 즉 주현절과 가장제가 겹쳐있었습니다. 습속에 따라 강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브라크교회당에서 오월수세우기가 있고 재판소강당에서 성사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사면팔방에서 지정된 세곳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월수를 구경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사극을 구경하러 가고있었습니다. 이틀전에 프랑스의 황태자와 플랑드르





의 공주와 정혼할 사명을 띤 사절단이 성사극공연을 구경하러 온데다 같은 강당에서 가장교황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사범공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이 사람을 안고 돌 지경이 되어 널다란 사범공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있었습니다.

재판소의 혼잡은 대단했습니다.

바로 플랑드르의 사절단이 성사극과 역시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가장교황선발대회에도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때문입니다.

그무렵 감옥내 집회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그 넓은 강당안으로 뚫고 들어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극도로 혼잡을 이룬 재판소 문앞의 광장은 안에서 내다보는 사람들의 눈에 마치 바다와도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광장에는 여러갈래로 길이 트인채 설사이없이 새로운 인파들이 물결치고있었습니다. 정문앞 널다란 층계로 잇달아 오르내리는 인파들은 흡사 호수가로 떨어지는 폭포와도 같아서 떠들썩한 소리와 웃음소리에 무수한 발자국소리가 뒤섞여 요란스러운 소음을 일으키는것이였습니다. 그런 소란은 순라대의 군사들이 호통을 치거나 군중들을 정리하려는 기마군사들이 박차로 말허리를 차고는 하기때문에 일어나는것이였습니다.

문턱에도 창가에도 유리창에도 그리고 지붕우에도 온순하고 고지식한 술한 빠리시민들의 얼굴이 겹쳐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소나 구경군들을 보는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듯한 표정들이였습니다.



성사극은 재판소의 큰 시계가 열두번을 쳐야 막을 올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상연시간으로는 늦은편이었습니다. 실은 사절단의 일정을 맞추어야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새벽부터 추위에 떨면서도 재판소 층계앞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사람으로 들어가보겠다고 베틀면서 정문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흡사 홍수가 저서 강물이 불어나듯이 벽을 따라 높아지고 기둥을 싸고 부풀어졌으며 창문턱과 건물의 튀어나온 부분이나 양각으로 불룩해진 곳에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공간이 비좁기도 했거니와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약이 오르고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쓰잘데없는 롱지거리와 부질없는 소란이 허용되는 날이다보니 팔꿈치가 아프다느니 구두창의 쇠불이가 발끝을 뺏았다느니 하는 트집만으로도 여기저기에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사절단이 오기도전에 밀고 밀리는 바람에 숨이 막힐 지경인 사람들의 기분은 자연히 날카로워지고 험악해졌습니다. 플랑드르의 사절, 시장, 추기경, 재판소 총감과 집달관 등을 향해 퍼붓는 불평과 욕설로 귀가 쟁쟁할 지경인데다 출다는지 답다는지 날씨까지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빠리의 대주교를 비난하거나 가장교황을 향해 트집을 잡거나 기둥이나 조각상에까지 욕지거리를 쏘아붙이며 문짝이 닫혔으면 닫혔다고 창문이 열렸으면 열렸다고 탓하기



도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저기 끼여든 학생들이나 하인
배들은 좋아라고 설치면서 불평소리나 욕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때마다 결달아 욕설을 퍼붓고는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초조한 기분을 더 흔들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더 판을 치는 젊은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부수어버리고는 안하무인격으로 창문턱에 올라
앉아서는 실내의 사람들과 광장의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려대었습니다. 그 패거리들은 강당 이쪽과 저쪽 끝에서 서
로 우습강스러운 시늉을 하거나 소리내여 웃거나 통지거리를
주고받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즐기다니 젊은 패거리들은 심
심해하지도 않았고 물론 지겨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구, 애, 이 녀석아! 요한 플로로 드 몰렌디노(라틴어
로 풍차간의 요한 플로로)가 아니냐?”

어느 학생이 금방 청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이 보이는 청년은 기둥웃쪽의 아칸서스잎장식에 붙어있었습
니다.

“풍차간의 요한이란 그럴듯한 별명이지. 그곳에 달라붙은
네 팔다리가 바람에 돌아가는 풍차날개와 꼭같구나. 언제부터
와있었니?”

“벌써 네시간도 넘었다.”

금황색머리칼의 요한 플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네시간은 내가련옥에서 고생할 시간에서 삭제해야겠
어.”



마침내 시계는 겨우 12시를 가리키고있었습니다.

“앗...”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웨쳤고 장내가 떠나갈듯 떠들어대던 학생들도 모두 물을 끼얹은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이었습니다. 잠시후 저마다 자리를 잡으려고 서로 밀고 죄어들면서 법석을 떨다가 이윽고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목을 길게 빼들고 사절단을 위하여 마련된 귀빈석을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아침부터 세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정오와 플랑드르사절단 그리고 성사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각에 들이닥친것은 단지 정오뿐이었습니다.

몇분을 더 기다렸지만 마찬가지로 귀빈석은 텅 비여있었고 무대에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관중들이 화를 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처음 불을 지른 사람은 몰로였습니다.

“연극은 어떻게 되었어? 열간이 플랑드르친구들아!”

몰로는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플랑드르명칭이들아, 성사극은 안하느냐!”

여기저기서 큰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교살시



커버틸테야.”

롤로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먼저 정리부터 걸어매볼가?”

관중들의 시선이 네 구석에 있는 정리들을 향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정리들이 서로 마주 쳐다보고만 있을 때 관중들은 정리들을 향해 움직였고 그러자 란간이 쇄도하는 인파를 막아내지 못하고 부서져버렸습니다.

“잡아죽여라! 죽여!”

관중들의 호통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때 무대의 막을 열고 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사나이는 벌벌 떨면서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사나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성모의 올바른 재판’이라는 교훈극을 추기경을 모신 이 자리에서 공연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격해마지않는바입니다.

주피터의 역은 제가 맡았습니다. 추기경께서 도착하시는데로 곧 시작하겠습니다.”

주피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재판소의 가엾은 정리들은 목숨을 잃을뻔했습니다.

주피터가 입은 옷은 관중들을 감탄시키는데 만족스러웠지



만 그가 떠벌리는 동안 감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관중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성사극을 빨리 시작하라!” 하며 재촉했습니다.

“주피터를 죽여라! 추기경을 죽여라!”

창문턱에 앉은 학생들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가엾은 주피터는 창백한 얼굴로 쥐고있던 도구를 떨어뜨린채 굽실거리며 떨어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추기경께서… 사절단께서… 플랑드르공주는…”

그는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책임자격인 한 청년이 나타나 주피터를 곤경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마른 몸집에 후리후리한 키풀의 그 청년은 창백한 얼굴색에 금발머리였습니다. 아직 젊은이건만 이마와 두볼에는 벌써 주름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생기에 차있었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있었습니다. 청년이 입은 검은색옷은 밝아 반들반들 닳아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무대우에서 찢찢매는 주피터에게 다가서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주피터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봐, 주피터, 주피터.”

청년은 앞으로 한발자국 나서며 불렀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코밑까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짓했습니다.

“미셀 지보르느!”